

한국과 프랑스의 대(對)아프리카 문화정책-비교와 전망*

오 정 속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자 유동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불린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미지의 대륙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아프리카의 문화적 혼종성과 역동성에 주목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각각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는 외교부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정책 기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편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 다른 한편으로 한·아프리카 간의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프랑스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문화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를 자원 시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평등한 동반자 관계' 정책을 참조하여 문화적 상호이해에 기반한 '평등', '존중', '상생'의 동반자적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한·아프리카 문화정책, 문화교류, 프랑스 아프리카 문화정책, 프랑코 포니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6919)

I. 서론

2024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 Korea-Africa Summit)는 우리의 역사에서 아프리카와 관련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외교적 행사였다. 외교부가 발표한 행사 개요에 따르면¹⁾, 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 국가 중 48개국 및 4개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가 참석했고 이 중 34개국이 정상급 인사를 파견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정상회의는 규모 면에서 한국의 “소집 능력(convening power)과 국가적 매력”²⁾을 성공적으로 대내외에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 정상회의의 7개 우선 협력 의제는 (i) 무역과 투자 증대를 통해 상생적 경제성장 도모, (ii) 글로벌 도전에 대응(식량안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및 공공보건 등), (iii) 지속가능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 (iv) 인적자원 개발(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등), (v)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vi) 상호 이해 증진, 국민적 교류, (vii) 평화와 안보로 요약될 수 있다.³⁾

위에서 제시된 7개 우선 협력 의제 중 우리는 여섯 번째로 제시된 ‘상호 이해 증진, 국민적 교류’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인구 14.2억 명, 총 GDP 3.4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단일시장이자 비약적인 경제 성장률,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 세계

1) https://toronto.mofa.go.kr/www/brd/m_27812 참조. 4개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AU(아프리카연합),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Africa CDC(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

2) 박종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산: 성과, 교훈 그리고 과제」, 『아프리카 위클리』, 2024-30호. 소집 능력이란 “공통의 목표나 과제와 관련한 모임을 주도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으로서, “어떤 강제력이나 재정적 힘이 아닌 관계적이고 협동적인 것을 내포한다” (Rick Baker, 2023), <https://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5&idx=8529>에서 재인용.

3) 박종대, *Ibid.*

에서 가장 젊은 대륙으로서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 불린다.⁴⁾ 또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 이상인 54개국이 소재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비상임이사국 10석 중 3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외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대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는 과거 식민 통치를 통해 제국을 꿈꿨던 프랑스,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⁵⁾. 하지만 한국에서 아프리카는 여전히 기아와 내전, 독재, 전염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대륙이라는 이미지가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섯 번째 의제로 제시된 ‘상호 이해 증진, 국민적 교류’는 한-아프리카의 상생적 연대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타자를 이해하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사, 언어, 문화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최근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흐름 속에서 점차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라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국과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아프리카 문화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주목하며 최근에 아프리카와의 문화 교류

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 『아프리카 위클리』, 2024-18호. 아프리카 인구의 중위 연령은 18.8세, 2023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은 3.2%로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인 2.9%를 넘어섰다. <https://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6&idx=8199> 참조.

5) 중국은 2000년부터 3년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을 개최하고 있고, 미국은 2014년 정상회의 이후 2022년 8년 만에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러시아는 2019년과 2023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수, 「부상하는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새로운 대(對)아프리카 전략 수립의 필요성」, 『아프리카 위클리』, 2024-22호. <https://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6&idx=8267> 참조.

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 출범 이후 제국주의적 이미지를 벗고 아프리카와의 상생적 문화 파트너십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국가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한 한·아프리카 상호 이해와 교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 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기초 및 방향을 고찰해보기 위해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 및 주요 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III 장에서는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기초 및 방향을 고찰해보기 위해 특히 프랑스 외교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변화과정과 주요 문화 교류 사업을 분석해 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특징과 흐름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프리카와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상생적 문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 기초 및 방향

- 국내 주요 기관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1. 외교부

한국은 196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베냉,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6개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아프리

카와의 본격적인 외교를 수립하기 시작했다.⁶⁾ 이후 ‘88 서울올림픽’의 유치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외교적 중요성이 부각 되었고,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1991년 UN 가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출범은 대 아프리카 외교의 신호탄이 된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아프리카는 독재와 내전, 빈곤과 기아, 에이즈 등과 같은 전염병 이슈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여전히 소외 대륙으로 남아 있었다. 2002년에 아프리카연합(AU)의 출범은 ‘하나의 아프리카’라는 슬로건 아래 아프리카가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정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한국은 2005년 AU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하면서 아프리카와의 외교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006년에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프로젝트, ‘한-아프리카 경제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포럼(KOAF)’의 출범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본격적인 외교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드디어 2011년까지 한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전체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때까지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의 중심은 자원, 개발, 경제 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부터 한류의 인기가 아프리카로 확산되면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문화’가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서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한다. 2016년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청사진 이니셔티브’를 통해 상생 동반자로서 한-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2018년에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한-아프리카 재단’이 설립되며 본격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기관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서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먼저 최근 3년간 외교부의 대아프리카 정책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은

6) 한·아프리카 수교 역사는 외교부 홈페이지에公示된 기록을 참조한다.

https://www.mofa.go.kr/www/wpge/m_3551/contents.do 참조.

7) https://www.mofa.go.kr/www/brd/m_4175/view.do?seq=366695&page=1 참조.

코로나 극복의 이슈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국민 중심 외교’를 표방하면서 대아프리카 정책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2022년에는 코로나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외교부는 ‘외교 다변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고위급 외교 및 외교 인프라 강화를 통한 한·아프리카·중동 포괄적 실질 협력 강화,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한국어·한국학 보급 확대, 아프리카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연합(AU) 아랍연맹 등 지역 협력체와의 포괄적 실질 협력 강화,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로 한·아프리카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2023년에는 ‘글로벌 가치 국익 외교’를 표방하면서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내세운다. 2024년에는 ‘가치 기반 연대 외교’를 표방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K-Pop, K-드라마, K-영화 등 풍부한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공공외교 추진,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추진 등을 기치로 내건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외교간행물 중 최초의 문화 교류 협력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진행했던 문화 행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⁸⁾

8)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토고. 「2023년도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 결과 보고서」, 110-127, 176.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717 참조.

| | | | | | |
|----------------------|-------------|-------------------|------------------------------------|---|---|
| 에티오피아 주에티오피아(대) | 문화 | 전시/공연 | 한-에티오피아 수교 60주년 (1963. 12. 23.) | 3. 17~4. 16, 5. 26(사상식) 10. 31, 11. 10, 11. 11, 11. 15 | 로고 공모전 사진전 |
| 우간다 주우간다(대) | 정부경제/ 문화 | 비즈니스/공연 | 한-우간다 수교 60주년 (1963. 3. 26.) | 5. 30~5. 31 10. 3~10. 10 |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초청 행사 기업전시(문·오르러인) |
| 르완다 주르완다(대) | 정부경제/ 문화 | 공연/영화/ 세미나/공연 | 한-르완다 수교 60주년 (1963. 3. 21.) | 2. 10~3. 9. 5. 5~5. 7. 5. 12. 6. 3~6. 4. | 로고공모전 한국영화제 개발협력 세미나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초청 행사 |
| 모잠비크 주모잠비크(대) | 문화 | 공연 | 한-모잠비크 수교 30주년 (1993. 8. 11.) | 8. 3~8. 4. | 국악 공연 |
| 마다가스카르 주마다가스카르(대) | 정부경제/ 문화 | 공연/포럼/ 비즈니스/홍보 | 한-마다가스카르 수교 30주년 (1993. 5. 19.) | 2022. 8월 2022. 12월 5. 3., 5. 5., 5. 6. 6. 1~6. 2. | 기념품 제작 2023 한-마다가스카르 투자 진출 가이드 개정판 책자 발간 콘서트 비즈니스포럼 |
| 토고 주토고(대) | 문화 | 공연 | 한-토고 수교 60주년 (1963. 7. 26.) | 10. 12. | 한국영화, 전통 타악 공연, 영화 상영, 토고 전통무용 공연, 한식 리셉션 |

〈2023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국가·날짜별 행사 리스트〉

이 행사들은 모두 양국 간의 수교를 기념하는 문화 행사들로 기획되었는데, 행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전, 태권도 공연, 한국 영화제, 국악 공연, 한식 리셉션 등 대부분이 한국의 문화 소개 행사이었다. 아프리카 문화 관련 행사는 토고 전통무용 공연이 거의 유일하다. 수교 기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문화 교류 행사로 보기에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편중성이 보인다.

외교부 홈페이지와 외교간행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교 정책에서 문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십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비중 또한 여전히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문화외교 관련 자료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문화외교는 ‘자료실-한국외교 60년 : 제5장 문화외교’⁹⁾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을 뿐 자료로서의 가치는 거의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단발성의 교류 협력 행사가 주로 이루어졌고, 장기적·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 행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넷째, ‘한-

9) https://www.mofa.go.kr/www/wpge/m_4098/contents.do 참조.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3년 이후 문화 교류가 집중되었고, 또한 2024년 4월부터 8월 사이 아프리카 48개국 개황이 집중적으로 업로드되었다¹⁰⁾는 점이다.

2. 한·아프리카 재단

한·아프리카 재단(The Korea-Africa Foundation, KAF)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 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에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¹¹⁾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3개 언어로 구축되어 있다. 주요 목적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기타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¹²⁾ 크게 교류협력부, 교육홍보부, 조사연구부의 세 부서로 구성되는데, 각 부서별 중점사업을 표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³⁾

| | |
|---------------------|---|
| 교류 협력 행사 및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경제·비즈니스 세미나/포럼 • 아프리카 창업아이디어 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 외교 지원 • 지자체-아프리카 국가 교류 협력 촉진 |
|---------------------|---|

10) https://www.mofa.go.kr/www/brd/m_4099/list.do 참조.

11) 「한·아프리카 재단법 제1조」,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110> 참조.

12) 「한·아프리카 재단법 제7조」,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110> 참조.

13) <교류협력부>,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310>, <교육홍보부>,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320>, <조사연구부>,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330> 참조.

| | |
|------------------------------|---|
| <p>교육 홍보 행사 및 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 모의아프리카연합(AU) 총회 등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 Af-PRO) • 아프리카 주간(Africa Week), 아프리카 영화제(Africa Film Festival) 등 사회문화 인식 제고 • 한·아프리카 청년 포럼 등 아프리카 현지 국제회의의 참가 민관사절단 |
| <p>조사 연구 행사 및 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 연례 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화, SDA) 및 연구증진 • 아프리카 대륙 통신원 네트워킹 •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YPA) 파견 교육 • 아프리카 주요 이슈 브리핑 • 『아프리카 위클리(Africa weekly)』 발간 • 아프리카 관련 발간물 제작 |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아프리카 재단은 설립 목적에서 ‘문화’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목적 사업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정도로 간접적으로 문화 교류 사업을 암시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사업으로 교류협력부가 주관하는 ‘지자체-아프리카 국가 교류 협력 촉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지자체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자체 간의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이 상호 방문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아프리카 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자체-아프리카 교류 사례¹⁴⁾를 보면, 대부분이 외교 장관, 대사,

14) <https://localgov.k-af.or.kr/list-search/?korea=&afreeca=&start-year=2024&ac-type2> 참조.

국제회의의 회담들로서 사실상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크 및 의원 외교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나마 광의의 문화 관련 행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2019년 제2회 ‘한-아프리카 청년포럼(Korea-Africa Youth Forum)’, 2021년 남아공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 2023년 제1회 ‘톡! 톡! 톡! 아프리카’ 행사가 전부인데, 행사의 세부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이것들이 문화 교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사례」를 다른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그 취지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아프리카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국제교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지자체의 국제교류 유형 및 대상 지역 다변화를 촉진시키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가능한 교류방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⁵⁾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현황 개관」에 따르면, 유형별 분류에서 총 443건의 교류 중 행정·인적교류 179건, 협약체결 59건, 경제통상교류 63건, 기술·학술·정보교류 50건, 문화·예술교류 9건, 관광교류 35건, 스포츠 교류 4건 등으로 광의의 문화 교류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세 유형의 교류는 48건이 되어 전체 교류 중 대략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¹⁶⁾ 또한 국내 지자체별, 아프리카 국가별, 시기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에만 66건의 행사가 집중되어 「지자체-아프리카 교류협력 사업」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아프리카 재단 사업 중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들이다.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교육 사업’, ‘한·아프리카 청년 포럼’,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YPA) 파견 교육 사업’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한국과 아프리카 학생들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한국에서의

15) <https://localgov.k-af.or.kr/> 참조

16) <https://localgov.k-af.or.kr/total-type/> 참조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문화 교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사업은 ‘아프리카 주간(Africa Week)’, ‘아프리카 영화제(Africa Film Festival)’ 등 사회문화 인식 제고 사업이다. ‘아프리카 주간’ 행사는 재단이 외교부 및 주한아프리카외교단(AGA)과 공동으로 2019년부터 매년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¹⁷⁾을 기념하여 약 2주간 개최되는 문화 축제 행사이다. 가장 메인 행사이자 올해 7회째를 맞는 ‘아프리카 영화제’는 서울, 부산, 전주에서 5월 20일-6월 15일 사이 개최되며,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의 추천으로 선정된 아프리카 15개 국가의 영화 15편이 상영된다. 영화는 대중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다. 아프리카의 영화시장과 규모는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 모로코의 마라케시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에서 제작 지원을 할 정도로 작품성도 갖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아프리카 영화제는 한·아프리카 문화 교류 행사 중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몇 안 되는 행사 중의 하나로서, 영화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대중들의 고정관념을 해소시키고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주간’에는 영화제 외에도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얘기하는 ‘톡!톡! 아프리카’, 다양한 아프리카 문화공연, 위대한 아프리카인의 토크 콘서트 등

17)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설립일(1963.05.25.)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개최되어¹⁸⁾,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프리카 관련 가장 크고 다양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5월 10일-5월 12일 3일간 ‘한·아프리카 문화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¹⁹⁾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15개국²⁰⁾이 참가하여 국가별 홍보 부스를 통해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다양한 아프리카 커피 및 음식 시식,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의 체험 행사, 전통의상 및 악기 전시, 아프리카칸타악 그룹 ‘아냐포(Anyo Fo)’ 공연, 아프리카인 댄스컴퍼니 ‘따그’ 공연 등의 전시 및 공연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2024 한·아프리카 문화페스티벌’은 아프리카 관련 문화 행사가 국내에 거의 없는 현실에서 한·아프리카 문화 교류의 촉매제 역할과 아프리카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하지만, 축제가 서울에서만 개최돼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전국적 차원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주간’에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한·아프리카 문화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축제와 동시에 진행된 아프리카 영화제와의 시너지 효과가 홍보 부족으로 미흡했던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공연이 한국인 중심의 공연으로만 이어졌고 아프리카인 중심의 문화공연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 내 활동하는 아프리카 공연팀이나 아프리카 현지 공연팀 초청으로 공연팀의 다양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²¹⁾

이 외에도 한·아프리카 재단은 매주 『아프리카 위클리(Africa weekly)』

18) <https://k-af.or.kr/load.asp?subPage=260.View&searchValue=&searchType=&page=17&idx=718> 참조.

19) http://www.biztoday.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3590 참조.

20)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잠비아 + 아프리카 커뮤니티(우간다, 부룬디).

21) 『지속가능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외교부 정책보고서, 2024년 11월, 96.

의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를 전문가 그룹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한·아프리카 간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이 주관하는 문화 행사는 아프리카 주간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 중심의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과 병행할 필요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재단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문화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의 지원과 출판, 전국의 도서관들과 연계해 대중들을 위한 「찾아가는 아프리카 시민 강좌」²²⁾ 개설 및 운영, 아프리카와의 문화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콘텐츠 공동 제작, 기술 교류 지원 사업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²³⁾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한·아프리카 재단처럼 대아프리카 전문 기관은 아니지만, 한·아프리카 문화 교류와 아프리카에서의 한국학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기관은 크게 해외에서의 한국학,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교류, KF 글로벌센터라는 네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해외 대학 한국학 과정 운영현황』²⁴⁾을 보면, 2024년 기준 5대륙 1407개 기관

22) 경희대 아프리카연구소는 2023년부터 동탄, 수지, 수원 등 지역의 도서관들과 연계해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 문화특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http://africa.khu.ac.kr/> 참조.

23)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2.do?mi=1159> 참조.

24) <https://www.data.go.kr/data/15041591/fileData.do> 참조.

중 아프리카 8개국 12개 기관에 한국학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²⁵⁾ 이 중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국가는 없었고, 엑셀로 단순히 학위과정 유무만 정리되어 있어 한국학 학위과정의 커리큘럼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흥미로운 점은 2019년부터 위 대학과 기관 외에 추가로 아프리카에서 한국학 과정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문화 교류 차원에서 고찰해보자. 『아프리카 문화예술교류 사업보고서 (1992-2023)』를 참조해, 2006년-2015년까지의 아프리카 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 현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⁶⁾

| 사업연도 | 사업유형 | 사업분류 | 프로젝트명 | 사업국가 |
|------|------|--------|-------------------------------|-------|
| 2015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튀니지 모자이크 및 공예품 전시회》 | 튀니지 |
| 2010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한국-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 기념 나이지리아 미술전 | 나이지리아 |
| 2010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2010 짐바브웨 현대 미술전 | 짐바브웨 |
| 2009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색과 형을 통해 본 시간의 추이 | 수단 |
| 2008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케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내한공연 | 케냐 |
| 2007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튀니지 영화상영 | 튀니지 |

25) 케냐 나이로비대학,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대학, 세네갈 다카르 경영대학,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 수단 알자임 알야즈하르대학, 나이지리아 칼라바르대학, 케냐 케냐파대학,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우간다 쿠미대학, 탄자니아 도도마대학, 코트디부아르 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학. 예컨대, 케냐 나이로비대, 수단 알자임 알야즈하르대에는 학사만 개설되어 있고, 코트디부아르 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에는 학·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26) 『지속가능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외교부 정책보고서, 2024년 11월, 13.

| 사업연도 | 사업유형 | 사업분류 | 프로젝트명 | 사업국가 |
|------|------|--------|---------------|----------|
| 2007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남아공 아동문화 교류전 | 남아프리카공화국 |
| 2006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영화로 보는 튀니지 여성 | 튀니지 |
| 2006 | 단년 | 세계문화교류 | 이집트 영화 특별 상영 | 이집트 |

위 표에서 보듯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아프리카와의 문화 교류 사업에 2006년-2015년까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그 이후 최근 10년간은 지원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네트워킹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청년교류 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청년교류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한·아프리카 청년교류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제교류재단은 아프리카 5개 권역에서 거점대학을 지정한 후 한국학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세계 문화교류 차원에서 아프리카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국제협력단, 일명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²⁷⁾ 할 목적으로 1991년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글로벌 개발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지만, 대아프리카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 관련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이카의 2020-2022년 3년간 아프리카 지원 현황²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총액은 947,664,225\$ (약 1조 3천억 원)이고, 총 지원 건수는 3180건²⁹⁾으로 개도국 유학생

27) https://www.koica.go.kr/koica_kr/851/subview.do 참조.

28) <https://www.oda.go.kr/opo/nmstat/opoNstatStarSarList.do> 참조.

및 연수생 지원 1479건, 프로젝트 원조 1043건,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438건, 기타 기술협력 206건을 포함한다. 이 중 문화와 관련된 사업 원조 내용을 보면, 한국어 교육 관련이 12건(5억 2천), 문화교류 봉사단 파견이 6건(2억 8천), 총 3180건 중 18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아프리카 지역국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TIP 우리정부의 아프리카 지역 중점협력국가 -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2021년 아프리카 지역 국별 지원 실적(단위: 원)



코이카의 지원으로 건설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 ‘한-코트 디 스포츠 문화센터(Centre Sportif, Culturel Et Des Tic Ivoir-Coréen, CSCTICAO)’(이하 한코 센터)는 아비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 문화센터로, 세종학당이 입주하여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태권도 수업과 대회, 승급 심사가 열리는 공간, 스타트업 지원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 방문했을 때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트 디와 한국의 협력의 전시 공간으로 만들겠다”³⁰⁾는 설립 목적이 무색하

29) 건설 프로젝트 및 기자재 지원 제외

30) “Notre vision est de faire du CSCTICAO, la vitrine de l’intégration ivoiro-coréenne”, <https://cscticao.ci/index.php?cs=qsn> 참조.

게 상당히 많은 공간이 빈 채로 남아 있었고, 한국인 관계자는 세종학당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1인만 상주하고 있었다. 한국어 강좌와 태권도 수업, 한국문화와 관련된 약간의 책들과 포스터가 비치된 도서관 외에 한국과 코트디부아르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문화센터나 박물관 건립 등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건물 등 하드웨어 제공 이후의 문화적 내용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투입한 막대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 사례는 기존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코이카 ODA 사업이 문화 교류를 동반한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4. 기타 공공기관

외교부 산하기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도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최근 3년 내의 아프리카 관련 활동은 검색되지 않지만, 2006년도에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에서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조사한 보고서가 존재한다.³¹⁾ 이후 2014년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숙명여대가 주관한 ‘제1회 한국-아프리카 문화예술포럼’³²⁾은 한·아프리카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의 장이 되어 지금까지 경제, 외교, 원조 등에 초점을 맞춘 교류에서 문화 교류로의 이행과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포럼이다. 이후 2020년대부터 문화 ODA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입장은 재논의 된다.³³⁾

31)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문화관광부 정책보고서, 2006.12.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2006년 사이 비서구권과의 문화교류 대상 지역은 아시아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남미가 10~14%, 아프리카가 1~10% 정도로 나타났다 (*Op. cit.*, vii).

32) <https://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 참조.

33) 이성우·이영유,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문화 ODA」, 『문화정책논총』, 2021, 제35

2003년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서 지역·민간 주도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문화동반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시아·동유럽·아프리카·남미 각국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젊고 유망한 전문가(25~45세)를 초청하여 공동창작과 연수 및 교류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23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밀양시민예술단과 다카르 ‘에콜 드 사블르(Ecole de Sables)’ 무용교류 프로젝트³⁴⁾는 밀양시라는 지자체와 대한스트릿컬처연맹이라는 민간기관이 힘을 합쳐 아프리카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이룬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설립된 밀양시민예술단은 밀양 전통춤의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왔다.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한 ‘에콜 드 사블르’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무용가 제르멘 아코니가 설립한 무용 기관으로, 전 아프리카 및 유럽 지역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 워크숍을 진행하며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확장과 교류를 통해 꾸준히 창작 작업을 하는 아프리카 대표 무용기관이다. 밀양-세네갈 무용교류 프로젝트처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한-에티오피아 수교 계기 60주년 기념 문화공연’ 외에, 아프리카와 추진한 문화 교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사업 성격은 외교부

집 1호, 191-225 참조.

34)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mnu_sub=20800&seq=1350 참조.

산하 국제교류재단의 사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두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각 기관의 특성화와 공동 추진사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과 교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 2언어로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하에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 확대로 전 세계 공존공영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되었다.³⁵⁾ 중점사업으로는 세종학당 운영 및 지원, 한국어 교육 및 교원 지원, 한국문화 보급, 세종 한국어평가 운영 등이 있다. 2025년 5월 기준 아프리카에는 13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일부 세종학당(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은 한국문화원과 같이 운영됨으로써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보급과 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⁶⁾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세종학당 학생 및 인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식, 사물놀이, 판소리, K-뷰티, K-팝, 한국 영화·드라마, 한복, 한글 캘리그래피, 전통 무예 등을 가르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종학당재단이 운영기관 수요조사 및 선정을 통해 문화전문가를 파견하여 8개월간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세종학당 문화인턴 파견’ 제도는 한국문화 분야 대학(교)·원생을 현지 세종학당에 파견해 양질의 한국문화를 보급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국내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우수학습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중국의 공자학원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며 문화 교류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35)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030> 참조.

36)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우간다, 이집트,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참조.

5. 민간기관

대아프리카 문화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아프리카 인사이트(Africa Insight)를 꼽을 수 있다. 이 기관은 2013년 창립된 사단법인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스와힐리어 특강과 같은 교육 사업,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Seoul Africa Festival)’³⁷⁾과 같은 문화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은 2016년에 1회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민간 주도의 최대 아프리카 관련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제는 아프리카 관련 다양한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개최³⁸⁾되는데, 대사관 부스, 각종 체험 행사, 아프리카 패션쇼, 소규모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토요일에 개최되어 산책 나온 서울 시민들이 오고 가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축제라고 할 수 있다. 5월에 외교부와 한·아프리카 재단이 주관하는 ‘한·아프리카 문화페스티벌’이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면, 가을에는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이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것이다. 향후 두 축제가 연속성과 체계성을 갖춰 서사와 미래가 있는 축제로 거듭난다면 문화 행사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아프리카 관련 민간기관도 많지 않고 그 활동도 매우 취약

37) <https://africafestival.kr/> 참조.

38) 2016년에는 한국외대, 월드투게더와 공동주관, 서울시, 한·아프리카 재단이 후원했고, 2022년에는 서울시 후원, 하나카드 협찬, 요아정, 제주아프리카 박물관이 협력했으며, 2023년에는 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 공동주최했고, 서울시와 기아가 후원했으며, 2024년에는 서울시가 후원했다.

한 국내의 현실에서,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민간기관 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 외의 민간기관으로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Space Afroasia)’를 언급할 수 있다. 이곳은 2021년에 동두천시에 위치한 최북단 미군기지 캠프 케이시(Camp Casey) 앞에 형성된 보산 클럽 거리에 설립된 문화공간이다. 동두천은 “여섯 주한미군 기지와 기지촌이 위치했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³⁹⁾이다. 대부분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캠프 케이시 병력의 일부만 남아 있는 동두천은 이제 아프리카인들 3,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아프리카 타운으로 변모되었다. 인근에 있는 보산초등학교는 실제 많은 수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다.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는 동두천의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살려 아시아와 아프리카 예술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이보족 자료, 동두천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사진 및 의상, 소품 등 아프리카 관련 물품들이 전시되어있다.

Ⅲ.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 기초 및 방향

– 프랑스 주요 기관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 및 사업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 깊은 연관을 맺어 왔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정치적 관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39) <https://seulsong.tistory.com/1739> 참조.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관계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화 과정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은 몇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 초기 탐험과 노예무역(17세기~18세기) 시대에 프랑스는 세네갈과 같은 서아프리카 해안에 무역 기지를 설립하며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 카리브해의 섬들에 팔아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두는 삼각무역의 중심 국가였다. 19세기부터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잃어가자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된다. 1830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점령을 시작으로 서아프리카 내륙으로 진출하여 수단, 말리, 기니 등지로 세력을 확장한다. 1884년에 개최된 베를린 회담을 통해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이후 20세기 초중반까지 프랑스는 식민지 체제 정착을 위해 경제적 착취와 함께 문화 동화 정책을 추진한다. 철도와 같은 인프라를 개발하여 자원과 물자수송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학교 건설과 프랑스어 및 프랑스 역사 교육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강요하는 동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전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해지고, 결국 1960년대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들은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프랑스의 식민지화는 아프리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그 유산이 남아 있다. 특히 프랑스는 동화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식민지에 절대적인 문화적, 언어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독립 이후에도 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1970년 ‘프랑코포니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⁴⁰⁾를 창설한다. OIF의 회원국 수는 93개국(정부 포함)으로, 이 중

40) 엄밀히 말하면, 1970년에 OIF의 전신인 l'Agence de coopération culturelle et technique (ACCT)가 설립되었고, 1998년에 l'Agence intergouvernementale de la Francophonie가 되었다가, 2005년에 OI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적 공조를 통해 OIF는 프랑스어와 문화의 수호 기관에서 점차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맞서는 문화다양성과 언어다양성의 수호 기관으로 가치와 정책을 바꾸게 된다. 현재 OIF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명을 표명하고 있다. “1. 프랑스어와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촉진한다. 2. 평화, 민주주의 및 인권을 촉진한다. 3. 교육, 훈련, 고등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개발한다.”⁴⁴⁾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은 OIF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아프리카에서 확산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어 사용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프랑스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아프리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바로 ‘노예제 기억 위원회(Comité pour la mémoire de l'esclavage)’가 2004년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시작한다.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프랑스 역사, 더 나아가 유럽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에 속한다. 수 세기에 걸쳐, 조직적인 방식으로, 아이들과 여자와 남자들은 자신들의 땅과 문화와 가족에게서 뿌리채 뽑혀 나와 전 세계 여기저기 망명의 땅으로 던져졌다. (...).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집단적 역사를 구성한다.”⁴⁵⁾

44) <https://www.francophonie.org/la-francophonie-en-bref-754> 참조.

45)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esclavage, *Mémoires de la traite négrière, de l'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 Préface de Maryse Condé, La découverte, 2005, 11.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노예무역과 노예제가 ‘인류에 반하는 범죄(crime contre l’humanité)’임을 대내외적으로 처음으로 인정하고, 노예제의 역사와 그 영향을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구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기념 활동을 촉진하며, 일반 대중과 교육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예제도와 그 유산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기념일을 설정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정의와 화해를 도모한다. 노예제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식민-피식민의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히 문화정책에서 대변화를 꾀하기 시작한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문화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부르키나파소의 우아가두구 대학에서 행한 연설⁴⁶⁾에서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젊은 세대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둘째, 식민지 시대에 프랑스로 반출된 아프리카 문화재를 원래의 국가로 반환하겠다. 셋째,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교육 분야를 지원하겠다. 넷째, 사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프랑스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청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 세우겠다.

46) “Discours d’Emmanuel Macron à l’université de Ouagadougou”, le 28 novembre 2017,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17/11/28/discours-demmanuel-macron-a-luniversite-de-ouagadougou> 참조.

이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정책을 천명하며 문화재 수탈을 통해 프랑스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입힌 문화적 상처와 역사적 부채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마크롱 정부는 2018년, 프랑스의 역사학자 베네딕트 사부아(Bénédictte Savoy)와 세네갈의 작가 펠비네 사르(Felwine Sarr)에게 보고서⁴⁷⁾를 의뢰하여 반환의 기준과 절차, 반환을 위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설정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2021년에 공식적으로 베냉에 고대 왕국의 유물 26점과 세네갈에 유물 1점을 반환한다.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된 아프리카 문화재가 9만 점 정도임을 고려하면 이 반환은 ‘새 밭의 피’라는 지적도 나온다.⁴⁸⁾ 하지만 이러한 반환 사례는 프랑스가 과거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발자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⁴⁹⁾는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유대와 문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대아프리카 정책 목표를 ‘균형, 상호성, 책임’으로 설정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의도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계절 2020’⁵⁰⁾이라는 행사는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기’라는 슬로건 아래 프랑스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통해 현대 아프리카의 문화예술, 창조성, 청년들의 재능을 프랑스인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2024년 프랑스 및 아프리카 40여 개국

47) “Rapport sur la restitution du patrimoine culturel africain - Vers une nouvelle éthique relationnelle”, le 29 novembre 2018, <https://www.vie-publique.fr/rapport/38563-la-restitution-du-patrimoine-culturel-africain> 참조.

48) 프랑스에 한국 문화재도 2900점 가량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 언론은 프랑스의 베냉 문화재 반환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01146001> 참조.

49) 공식 명칭은 유럽외교부(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이다. 유럽외교부 하에 아프리카인도양국과 북아프리카중동국이 포함되어 있다. <https://www.diplomatie.gouv.fr/en/> 참조.

50) <https://www.saisonafrica2020.com/fr> 참조.

에서 동시에 열린 ‘프랑코포니 축제’⁵¹⁾는 ‘세상을 다시 만들다(Refaire le mond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번에는 프랑스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를 간략히 살펴볼수록 하자. 문화부는 2024년에 문화 영역에 1900만 유로를 투입하여 2700개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들은 모두 프랑스 국내 및 해외의 프랑스령 21개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들이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출신 프랑스인들의 공연 등을 제외한 순수 아프리카 관련 문화 행사나 정책은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아프리카 관련 섹션도 없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부가, 대외 문화정책 및 행사는 외교부 주관으로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⁵²⁾은 프랑스 정부의 개발 원조 기관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한다. AFD는 교육, 문화유산 보존, 문화 산업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화적 교류와 발전을 도모한다.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çais)은 전 세계에 걸쳐 프랑스 문화를 홍보하고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지부를 운영하며, 현지에서 프랑스어 교육, 예술 전시,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1) www.festivalfrancophonie2024.org 참조.

52) <https://www.afd.fr/fr> 참조.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한국과 프랑스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은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나라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이 각각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한 후, 이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글로벌 시대에 아프리카와의 문화적 교류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부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살펴본 결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프리카 국가 개황 제작 등 실질적인 문화 인식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의 수많은 경제협력 정책에 비해, 외교정책에서 문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십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비중 또한 여전히 매우 미미하며, 따라서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 재단은 지자체-아프리카 국가 교류 협력 촉진 사업,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아프리카 주간과 아프리카 영화제와 같은 사회문화 인식 제고 사업, 『아프리카 위클리』 발간 사업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제고, 한·아프리카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문화 행사의 다양화, 서울 중심의 편중성 극복,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한·아프리카 공동 연구의 지원과 출판, 아프리카와의 문화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의 영역으로 문화사업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역시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아프리카 문화교류와 아프리카에서의 한국학 보급 사업을 여러 차례 수행했지만, 최근 10년간은 아프리카 관련 지원이 거의 없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은 글로벌 개발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지만, 대아프리카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 관련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코이카의 지원으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건설된 ‘한-코트디부아르 스포츠 문화센터’의 운영 사례는, 문화센터나 박물관 건립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코이카 ODA 사업이 문화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 교류 사업을 동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세종학당재단의 대아프리카 문화정책과 교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해외에서의 한국학 진흥, 또는 K-culture 확산과 같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공동 추진사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제기된다.

민간기관으로는 아프리카 인사이트와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의 사업을 고찰했는데, 아프리카 관련 민간기관도 많지 않고 그 활동도 매우 취약한 국내의 현실에서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행사를 2016년부터 개최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교류에 기여해 온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주한미군 기지와 기지촌이 떠난 후 국내 최대 아프리카 거주지로 변모한 동두천에서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는 아시아-아프리카 예술인들의 연대와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문화적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동화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를 자국의 문화적, 언어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었고, 아프리카의 독립 이후 OIF를 중심으로 프랑코포니를 통해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수호하고자 했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맞서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함께 문화다양성과 언어다양성의 가치를 내세우며 동화 정책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꾀한다. 2004년 ‘노예제 기억 위원회’를 설립하고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인정하면서,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식민-피식민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프리카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우아가두구 연설을 통해, 프랑

스는 수탈했던 아프리카 문화재의 반환을 약속했고 실제로 2021년 베냉에 유물 26점을 반환하면서 대아프리카 문화정책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프랑스 외교부는 2017년부터 대아프리카 정책 목표를 ‘평등한 동반자 관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국내 주요 언론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모든 매체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한 리튬 등 핵심 광물 양해각서 체결을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심층 보도는 거의 없었다.⁵³⁾ 반면 해외 언론 기사를 보면, 한국이 아프리카를 시장으로만 보며 자원 쟁탈전에 참여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⁵⁴⁾ 지금이야말로 서구의 제국주의적 자원 침탈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역사적 맥락은 완전히 다르지만, 문화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아프리카를 침탈했던 프랑스가 제국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2017년부터 표방하고 있는 ‘평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정책 목표를 참조해서, 문화적 상호이해에 기반한 ‘평등’, ‘존중’, ‘상생’의 동반자적 문화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53) 조사기간 : 2024.5.27.~2024.6.9., 대상 언론매체 : 조선일보, 한겨레, 지상파(KBS, MBC, SBS) 메인뉴스, 연합뉴스, YTN. 『지속가능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외교부 정책보고서, 2024.11., 79-87 참조.

54) *Ibid.*, 87-90 참조.

■ 참고문헌

- 김용규(2013), 『혼종문화론 -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소명출판.
- 이명선 외(2017), 『변화를 만드는 초국적 여성 운동: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활동가 112인의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 이성우 · 이영유(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문화 ODA」, 『문화정책논총』, 제35집 1호, 191-225.
- 장용규 외(2022),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2006), 문화관광부 정책보고서.
- 『지속가능한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2024), 외교부 정책보고서.
-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 추진 전략: 공공외교적 접근을 중심으로』(2015), 외교안보연구소 정책보고서.
- Ardesi, Arianna(2017), *Patrimoine culturel et enjeux territoriaux en Afrique francophone appuie aux politiques locales*, HAL.
-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esclavage(2005), *Mémoires de la traite négrière, de l'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 Préface de Maryse Condé, La découverte.
- Dozon, J.(2015), *Afrique en présences: Du monde atlantique à la globalistion néolibérale*,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 Kianguebeni, Ulrich(2017), *La protection du patrimoine culturel au Congo*, HAL.
- Mayi, Joseph(2021), *La diplomatie culturelle de la France au cœur des enjeux de coopération en Afrique: Le cas du Cameroun*, Les Éditions du Net.

Mbembe, Achille & Sarr, Felwine(2017), *Ecrire l'Afrique-monde*, Philippe Rey.

Ndlovu-Gatsheni & Empire, Sabelo J.(2013), *Global Coloniality and African Subjectivity*, Berghahn Books.

Savoy, Bénédicte(2003), *Le Long Combat de l'Afrique pour son art. Histoire d'une défaite postcoloniale*, Paris, Seuil.

Somdah, Marie-Ange(2003), *Identités postcoloniales et discours dans les cultures francophones*, Paris, L'Harmattan.

https://toronto.mofa.go.kr/www/brd/m_27812 (검색일: 2025.02.10)

<https://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5&idx=8529> (검색일: 2025.04.10.)

<https://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6&idx=8199> (검색일: 2025.04.10.)

<https://k-af.or.kr/load.asp?subPage=73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6&idx=8267> (검색일: 2025.04.11.)

https://www.mofa.go.kr/www/wpge/m_3551/contents.do (검색일: 2025.04.02., 2025.04.07)

https://www.mofa.go.kr/www/brd/m_4175/view.do?seq=366695&page=1 (검색일: 2025.04.01.)

https://www.mofa.go.kr/www/brd/m_4099/list.do (검색일: 2025.04.02.)

https://www.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717 (검색일: 2025.04.01.)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110> (검색일: 2025.04.03.)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310> (검색일: 2025.04.03.)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320> (검색일: 2025.04.03.)

<https://www.k-af.or.kr/load.asp?subPage=330> (검색일: 2025.04.03.)

<https://localgov.k-af.or.kr/list-search/?korea=&afreeca=&start-year=2024&ac-type2> (검색일: 2025.04.04.)

- <https://localgov.k-af.or.kr/> (검색일: 2025.05.10.)
- <https://localgov.k-af.or.kr/total-type/> (검색일: 2025.05.10.)
- <https://k-af.or.kr/load.asp?subPage=260.View&searchValue=&searchType=&page=17&idx=718> (검색일: 2025.05.10.)
- http://www.biztoday.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3590
(검색일: 2025.05.08.)
- <http://africa.khu.ac.kr/> (검색일: 2025.05.02.)
-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2.do?mi=1159> (검색일: 2025.04.05.)
- <https://www.data.go.kr/data/15041591/fileData.do> (검색일: 2025.04.05.)
- https://www.koica.go.kr/koica_kr/851/subview.do (검색일: 2025.04.06.)
- <https://www.oda.go.kr/opo/nnstat/opoNstatStarSarList.do> (검색일: 2025.04.06.)
- <https://cscticao.ci/index.php?cs=qsn> (검색일: 2025.04.06.)
-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mnu_sub=20800&seq=1350 (검색일: 2025.05.05.)
- <https://www.ksif.or.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030>
(검색일: 2025.05.06.)
-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검색일: 2025.05.06.)
- <https://africafestival.kr/> (검색일: 2025.05.06.)
- <https://seulsong.tistory.com/1739> (검색일: 2025.05.06.)
- <https://www.francophonie.org/index.php/93-etats-et-gouvernements-125>
(검색일: 2025.05.06.)
- <https://www.francophonie.org/index.php/une-histoire-de-la-francophonie-23> (검색일: 2025.05.06.)
- <https://www.francophonie.org/index.php/une-histoire-de-la-francophonie-23> (검색일: 2025.05.06.)

<https://www.francophonie.org/la-francophonie-en-bref-754> (검색일: 2025.05.08.)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17/11/28/discours-demmanuel-macron-a-luniversite-de-ouagadougou> (검색일: 2025.05.08.)

<https://www.vie-publique.fr/rapport/38563-la-restitution-du-patrimoine-culturel-africain> (검색일: 2025.05.06.)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101146001> (검색일: 2025.05.06.)

<https://www.diplomatie.gouv.fr/en/> (검색일: 2025.05.02.)

<https://www.saisonafrica2020.com/fr> (검색일: 2025.05.02.)

www.festivalfrancophonie2024.org (검색일: 2025.05.02.)

<https://www.afd.fr/fr> (검색일: 2025.05.02.)

<https://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 (검색일: 2025.05.05.)

❖ ABSTRACT

Korea and France's Cultural Policies towards Africa: A Comparison and Outlook

OH, Jung Sook
Kyung Hee University

Africa is often described as the continent with the youngest population, the last blue ocean on Earth with the most abundant untapped resources, and the continent with the most vibrant cultural hybridity and dynamism. While the ‘2024 Korea-Africa Summit’ has indeed heightened national and public interest in Africa within Korea, Africa still largely remains a continent of mystery with a strong negative image among Koreans.

This study focuses on the cultural dynamism of Africa, aiming to illuminat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 and France's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the continent. It seek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y orientations of major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Korea and France's cultural policies towards Africa. Although the historical context is completely different, France's effort to redefine its relationship with this continent through culture offers us significant insights. Having moved away from its imperialistic past, France has since 2017 promoted an ‘equal partnership’ policy goal. It is time for us to establish a cultural policy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equality, respect, and co-prosperity.

Keywords: Korea-Africa Cultural Policy, Cultural Exchange, France-Africa
Cultural Policy, Francophonie

■ 논문투고일 : 2025. 05. 10

■ 심사완료일 : 2025. 05. 30

■ 게재확정일 : 2025. 06. 09